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구축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oryoin Larchiveum Space Construction Model

박 현 지 (Hyunji Park)**

장 우 권 (Wookwon Chang)***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고려인 역사문화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의 공간·기능을 고려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공간 및 업무 요구도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고자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차 전문가(관장, 대표자, 고려인 전문가 등) 대상의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려인 라키비움에 필요한 기능 위주로 설정한 공간·기능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공간요소는 도서관은 보존서고, 열람실, 휴게공간, 기록관은 기록물 보존실과 전시실, 문화관은 수장고와 전시실 등이다. 기능(업무)은 도서관 3, 기록관 5, 문화관 4개의 요소로 나타났다. 둘째, 면담 내용의 검토를 거쳐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공간구성은 지하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설치공간, 업무내용, 담당인력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onstruction model of Koryoin Larchiveum that considers the space and function of larchiveum, centering on the Koryoin Historical and Cultural Center.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librarians, archivists, and curator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space and work requirements by institu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surve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condary experts (directors, representatives, Koryoin experts, etc.) on spatial components. As a result, first, spatial and functional elements set mainly for functions necessary for Koryoin Larchiveum were derived. Spatial elements include storage, reading rooms, and resting areas for libraries, archives storage rooms and exhibition rooms for archives, and storage and exhibition rooms for cultural centers. Functions (work) were represented by 4 elements: library 3, archives 5, and cultural center. Second, after reviewing the interview, the Koryoin Larchiveum construction model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s for the spatial composition, the installation space, work contents, and manpower in charge were presented from the first basement floor to the third floor above the ground.

키워드: 라키비움, 고려인, 고려인마을, 역사문화관, 공간구축모형

Larchiveum, Koryoin, Korean Village, History and Culture Center, Space Construction Model

*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2023)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yunjip@jn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3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9월 2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3): 183-204,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3.183>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타국에 정착한 삶을 살면서도 모국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이주 고려인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며 전 세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이주와 정착, 그리고 삶의 여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생산·유통·서비스하고 있다(장우권, 김현희, 2022).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은 수집·가공·축적·정리·유통되어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기록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고대에는 도서관과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관련법에 관한 차이는 있지만, 자료의 수집·보존·공개라는 측면에서 세 기관의 기능은 공통적이다(이시가와 테쓰야, 네모토 아키라, 요시미 순야, 2021).

인쇄 매체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전시 및 교육을 하는 박물관이 통합된 지식정보자원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세 기관의 기능이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식정보기관의 집합체를 라키비움(Larchiveum)이라고 한다.

라키비움은 국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해외에서 시작하여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합의 예로 캐나다 국립도서관인 LAC(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가 있다. 이곳은 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캐나다의 기록 유산을 보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20).

출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순으로 약 76,000여 명의 고려인이 국내에 거주 중이다(법무부, 2022). 과거와 비교해 고려인의 한국 이주는 늘어나고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와 연구의 결과물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광주 월곡고려인문화관의 매우 협소한 수장고와 문화관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시실만을 갖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넓은 공간의 이전은 요구된다.

이에 고려인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고려인의 삶의 여정의 역사를 기리며 고려인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소통공간으로서 고려인 라키비움이 필요하다. 즉 라키비움은 고려인 역사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의 훼손과 망실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보존과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기록관, 고려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의 장으로서 도서관, 고려인 생활박물관 등을 한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간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려인마을의 월곡고려인문화관을 토대로 도서관과 기록관을 더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요구되는 공간·기능을 고려한 고려인 라키비움의 공간구축 모형을 제시하여 추후 이루어질 고려인 라키비움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고려인의 이주 역사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하여 광주 고려인마을에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공간모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과 라키비움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려인 라키비움에 관련된 면담용 질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질문형태로 라키비움 관련 직종 종사자의 인식 및 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라키비움의 요구되는 공간·기능을 파악하였다. 셋째, 정량적인 설문조사의 내용과 미흡한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라키비움 구축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성적인 측면에서 광주고려인마을 대표자 및 고려인 전문가, 라키비움을 구축하는 대표 직종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넷째, 면담의 내용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라키비움 공간 및 기능의 구성요소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수정을 거쳐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구축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은 건축법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나 면담을 통하여 여러 방면(사서, 학예사, 기록연구사)에서 경력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고려인의 160년 이주의 역사 속에서 생산된 의미 있는 지식정보자원을 보존하고 그들의 삶과 삶의 가치를 기림과 동시에 고려인의 역사·문화적 소통 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고려인과 라키비움 관련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고려인 관련 연구이다. 주로 국내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려인마을에 관한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김경학(2014)은 '고려인마을'로 알려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대에 형성된 고려인 집거지에 거주하는 일부 고려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통해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과정을 규명하였다. 또한 한국으로의 고려인 이주는 해당 국가의 정책적 압박, 악화된 경제 여건이라는 배출요인과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일부 우호적인 이민정책과 같은 흡수요인에서 생산되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하였다. 선봉규(2017)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고려인마을의 공간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향후 고려인마을의 고려인 주민 행사에 원주민들을 포함 다른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막래(2017)는 고려인마을이 다른 곳이 아닌 광주에 형성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광주 고려인마을의 구조를 설립된 단체나 기관, 그리고 그들이 기념하는 축제와 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의 고려인 집거지 중 하나인 고려인마을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비슷한 타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윤 빅토리아(2021)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귀환한 20~4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이주 배경과 한국 생활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체성을 조사하여 언어가 정착 과정에서 직면한 주요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인 관련 연구는 한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재외동포라는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이 사회·문화적인 접근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둘째, 라키비움 관련 국내 연구이다. 기관 또는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라키비움 도입 및 구축 방안을 제안, 구축을 위한 공간 기획,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라키비움 활성화 방안, 라키비움 인식조사 등으로 나타났다.

최영실(2012)은 현실의 문제를 인식 후 기록 관리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용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정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라키비움 개념을 도입하였다. 아직 국내나 해외에서 라키비움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라키비움 모형을 제안하였다. 김미연, 정옥경(2017)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라키비움 인식 및 구축의 필요성, 구축 방법, 선결 요건, 기대효과 등을 알아보고자 라키비움 사례와 유사 서비스 분석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서 114명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라키비움 구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공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박승진, 이정미(2018)는 미래의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도서관 기반 라키비움 구축을 위해 공간구성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

영 방안의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사 사례를 조사한 후 공간 타당성 및 이용자 유형별 요구를 분석하여 예상 시나리오와 운영 및 서비스 규정 개발을 제시하였다. 전한성, 윤재웅(2021)은 지식정보 및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핵심 공간인 만해문학박물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기능 확대, 공간확보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및 모형을 제시하거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세 가지 기능 및 업무 통합 필요성을 내세우며 도서관 혹은 기록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관 혹은 문학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라키비움 도입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는 각 대상의 특징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주 고려인마을 지역에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하면서 나타난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과 현지 생활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려인마을과 라키비움

2.1 고려인과 라키비움

2.1.1 고려인

고려인은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심의 독립국가연합 CIS(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일컫는다. 구소련에 거주하던 한인들은 자신들을 '조선사람', '조선인', 또는 '고려사람', '고려인'이라고 불렀으며 러시아어로 '카레예츠'라고 지칭하였다. 1860년에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의 연해주로 들어가 정착한 조상들은 자신들을 '조선사람'이라 부르고 러시아인들도 조선인을 '고려사람'으로 불렀다(김호준, 2013).

이후 1937년 정치적 탄압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도 스스로를 '고려사람'이라 부르며 억척스럽게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그러나 1945년 한반도의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어 이 명칭 사용도 혼란스러웠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되면서 소련군이 북쪽을, 미군이 남쪽을 진주하게 된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이후 소련에서는 '조선'보다 '고려'라는 용어를 더 사용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소련군을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쪽의 고려인이 남쪽의 한국인과 만나면서 자신들을 조선사람이나 한국사람과 구별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그들은 각자의 호칭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는 고려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김호준, 2013).

따라서 고려인들은 1990년대 초에 선조들이 과거부터 부르고 비공식적으로는 널리 부르던 '고려사람'을 자신들을 가리키는 유일한 명칭으로 '고려인'으로 공식화하였다.

2.1.2 라키비움(Larchiveum)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을 혼합하여 만든 복합문화 시설 공간으로 신조어(新造語)이다. 문화시설은 인간과 관계된 생활양식의 '문화'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곳으로, 인간의 복합적인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나누는 시설이다. 라키비움 개념은 2008년 미국 텍사스대학의 메간 윈젯이 라이브러리 저널 인터뷰 중 비디오게임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보관할 수 있는 곳에 관한 질문에서 세 기관의 기능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로 답함으로써 등장하였다(Kuzyk, 200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라키비움 용어 유래로 윈젯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사실 세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시도하던 시기와 윈젯의 의견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LAM(Libraries, Archives, Museums), 영국에서는 MLA(Museums, Libraries, Archives)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수현, 2021).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ABM(Archives, Biblioteker; 스칸디나비아어의 도서관, Museums)이라는 약어를 사용하며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 간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이다(Hedegaard, 2004).

위와 같이 국가 차원으로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세 기관이 협력한 사례는 유럽과 북미에서 찾을 수 있다. 2004년 캐나다 국립기록보관소와 국립도서관의 기능이 통합되어 도서관과 기록보관소(LAC)가 되었고 2012년에 폐지되었으나 영국에는 자선 단체이자 공공기관인 박물관도서관기록관위원회(MLA)가 있었다. 미국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는 기술서비스, 다양한 연구, 도서관과 회원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2009년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박물관

관 협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22). 또한 2008년 LAMM(Libraries, Archives, Museums, Monuments & sites)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기념물 및 유적지, 시청각 기록보관소 등이 모여 만든 위원회이고 현재까지 각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 2022).

따라서 라키비움은 새롭고 다양한 매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설비와 시설을 갖춘 도서관·기록관·박물관 통합의 복합공간이다. 도서관 역시 인쇄매체 중심의 자료 이외에 새로운 매체를 수집·소장하여 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조현양 외, 2015).

2.2 고려인마을과 고려인문화관

2.2.1 고려인마을 형성 배경

소련이 붕괴하자 유랑(流浪)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고려인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에서 터를 잡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려인은 공통된 언어인 러시아어를 쓰는 같은 지역 출신의 동포들끼리 집단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도 안산 등에 모여 살고 있다(정막래, 2017).

고려인은 우리나라에서 88서울올림픽(1988)이 개최된 것을 계기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역사적 조국과 연결될 기회가 생겼다. 더불어 모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붐이 일어났으며 그 예로 1991년 소련에 '광주한글학교'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금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민간의 한글학교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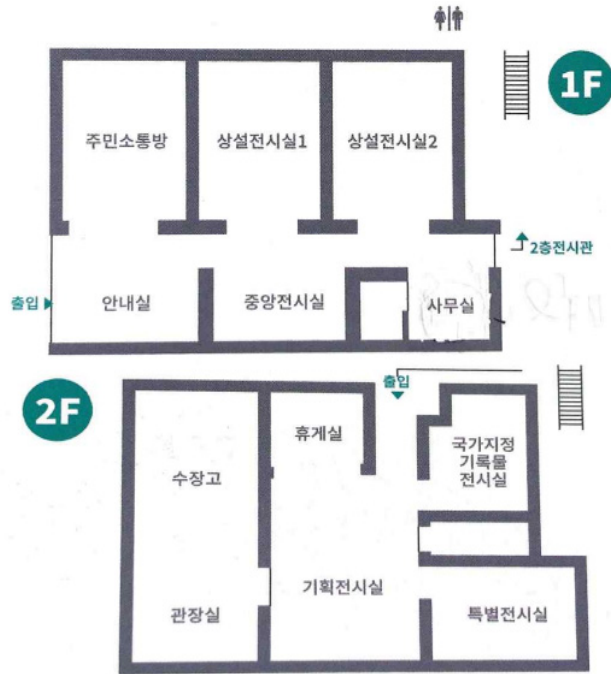
워졌다. 소련의 5개 지역(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와 알말리크,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우스또베,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 광주한글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고려인 현지 교사를 채용해 운영되었다. 1992년에는 한국인 교사를 광주에서 파견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주한글학교 설립 24년 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지역의 광주한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세종한글학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문제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모두 폐교되었다(지충남, 양명호, 2016).

역사적으로 광주는 고려인과의 인연이 깊다. 2000년대 무렵 고려인 일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과 산정동 일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신조야의 주도하에 상담소를 개소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고려인마을' 형성되었다(오늘날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처음에는 산업단지(하남산단) 주변으로 몇 가구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후 점차 수가 늘어 2017년에는 4천여명(등록자 수는 2,869명)으로 증가되었다(김병학, 2022).

2.2.2 고려인문화관 현황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은 2021년 1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역사마을 1번지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2층 건물인 이곳은 고려인역사유물 전시관인 '숨결'과 주민소통방인 '금결'로 나뉘어져 있으며 고려인들이 구소련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남긴 각종 자료와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다.

다음 <그림 1>은 월곡고려인문화관의 공간배치도이다.



〈그림 1〉 월곡고려인문화관 공간배치도

1층은 안내실, 주민소통방 ‘금결’, 상설전시실 1·2, 중앙전시실이 자리하고 있다. 주민소통방은 월곡동 주민들의 소모임과 반사회, 이주민들의 자국 문화 및 음식 소개, 이주민 자녀들의 모국어 동화책 읽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상설전시실 제1실은 ‘이주와 정착’ 및 ‘항일운동과 문화운동’, 제2실은 ‘강제 이주와 시련의 극복’ 및 ‘황무지에서 피어낸 민족혼’이라는 주제로 고려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와 유물들이 연대기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중앙전시실의 TV에서는 고려 아리랑이 소개되고 있다.

2층은 기획전시실, 국가지정기록물전시실, 특별전시실이 배치되어 있다. 기획전시실은 고려인 역사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조명하고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기획전(企劃展)은 ‘2021년 고려사범대학교 개교 90주년’, ‘2022년

고려극장 창립 90주년’으로 이루어졌다. 특별전시실은 고려인을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생애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2021년에는 여성계몽운동의 선구자 ‘주동일 특별전’이, 2022년에는 ‘한 야꼬브 작곡가 특별전’이 열렸다. 국가지정기록물전시실은 2020년 1월 국가지정기록물 제13호로 등재된 ‘고려인 모국어 문화예술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고려인 1, 2세대 작가들이 생산한 육필 회곡, 소설, 가요집, 그리고 고려극장에서 생산한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고려인 문화유산의 보관은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의 아직 미흡하다. 특히 고려인마을의 생생한 정보통신 인터넷방송 <나눔방송>과 <고려FM> 같은 매체들은 기록물로 등록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인쇄매체나 디지털매체를 통해 기록물

로서 보존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고려인 및 고려인마을과 관련된 기록물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2.3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의 필요성

광주 광산구 2020 통계연보에 등록된 외국인 은 13,461명으로 광주 외국인 거주 인구 40,480명 중 33%를 차지하고 있어 광산구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광주광역시 광산구, 2020). 그중 광주 광산구 고려인 집단 거주지인 고려인마을에는 현재 약 4,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2022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의 고려인 동포 400여 명이 고려인마을로 정착하게 되면서 고려인 거주자가 늘고 있다(유영혁, 2022).

전국 각지에서 우리 민족으로서 고려인을 위한 지원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많은 고려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였으며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곳으로 고려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고려인 디아스포라 연구는 고려인 관련 역사적 사실을 습득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활동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나 영주권 확보, 의료보험 등의 법적인 제도가 고려인의 상황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한시적인 도움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권한이 없는 고려인은 제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을 돕는 협회, 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기부 운동도 활발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할 고려인 청소년의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대 국회의 고려인특별법은 형식에 지나쳐 발의된 법안으로 모두 폐기가 되었으나 2019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고려인 4세 이하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2021년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주 월곡 고려인문화관은 매우 협소한 수장고로 고려인의 유산·유물들이 관계자의 집이나 학교 등으로 흩어져있다. 전시공간도 최소한의 문화관 형태만 갖출 뿐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따라서 이 문화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기록관의 기능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서 라키비움을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키비움 구축시에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관 공간을 확보하고, 도서를 포함한 유물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시가 이루어진다. 둘째, 우리 역사의 소중한 자산인 고려인을 기념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인지도로 한국 사회의 고려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셋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고려인마을이 형성된 이후 월곡2동의 일부가 마을로서 활성화되어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인을 위한 활동(체류 문제, 법률 및 정책 문제, 후원금 마련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광주 고려인마을 역시 한국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의 문제가 크게 작용해 고려인들만의 집거지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만 생활하는 폐쇄적인 이미지를 준다. 따라서 고려인 라키비움의 구축은 마을의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민자인 고려인과 일

반인 간 소통공간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3.1 설문조사 및 분석

3.1.1 설문 구성 및 분석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조사와 분석결과 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서 장미경(2016)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네 개의 영역에서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주요 영역은 라키비움 인식, 공간·업무기능 요구도, 기대효과, 일반특성이다.

설문조사는 라키비움 관련 종사자인 광주·전남지역의 시·구·군 문화원 실무자, 광주

광산구 포함 대학·공공도서관 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사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 약 2주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사전 양해 후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지를 전체 100부를 배부하였고 그 결과 문화원 실무자 12부, 사서 35부, 기록연구사 27부, 학예사 6부로 총 80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80%).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이다.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진 정보와 자료, 기관 간 협력, 전담부서, 예산 및 장단기 계획을 각각 필요성의 필요 정도에 따라 나누어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명목 척도로 변환하였다(〈표 1〉 참조).

필요성의 개수에 따른 기관별 공간 및 업무 요구도 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표 1〉 필요성 개수에 따른 명목척도 변환

구분	항목	빈도수
필요성 1개	A	3
	C	4
	D	2
전체수		9
필요성 2개	A, B	1
	A, C	2
	B, D	1
	C, D	24
전체수		28
필요성 3개	A, B, C	1
	A, B, D	2
	A, C, D	5
	B, C, D	13
전체수		22
필요성 4개	A, B, C, D	21
		총 80

* A. 많은 정보와 자료의 필요성, B. 기관 간 협력, C. 전담부서, D. 예산 및 장단기 계획 마련

3.1.2 조사 대상자 특성 분석

응답자의 일반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자 30명(37.5), 여자 50명(62.5)이다. 연령은 20대 22명(27.5), 30대 34명(42.5), 40대 14명(17.5), 50대 이상 10명(12.5)이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 35명 5년에서 10년 미만 27명(33.8), 10년에서 20년 미만 14명(17.5), 20년 이상 4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학사 52명(65.0), 석사 24명(30.0), 박사 4명(5.0) 순이다.

3.1.3 변수간 평균차 분석

라키비움의 필요성 개수에 따른 도서관 요구도 분석 결과, 필요성의 개수에 따라 도서관 업무1 '참고정보서비스'는 $F=2.691, p=0.027$, 도서관 업무2 '이용자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F=2.236, p=0.015$ 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다변량 분산분석(MONOVA) 결과 평균차가 유의하게 나타난 업무1과 업무2에 대해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여 평균차를 살펴 보았다. 사후분석(Duncan) 결과, 여러 방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업무1 '참고서비스'와 업무2 '이용자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았다.

라키비움의 분야별 필요성에 따른 도서관 공간 및 업무기능 요구도의 평균 차이(I-J)를 살펴본 결과, 유의성을 보인 도서관의 업무1에서 4개 모두 필요하다 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0.71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업무2에서 4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0.65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기록관 요구도 분석 결과, 필요성의 개수에 따라 기록관 공간1 '기록물 정리실 및 보존실'은 $F=2.326, p=0.006$, 기록관 공간2 '기록관리전문요원 전용 작업 공간'은 $F=4.052, p=0.005$,

<표 2> 조사대상자 특성

	문항	빈도(명)	확률(%)
성별	남자	30	37.5
	여자	50	62.5
연령	20대	22	27.5
	30대	34	42.5
	40대	14	17.5
	50대 이상	10	12.5
	계	80	100.0
근무 경력	5년 미만	35	43.8
	5년~10년 미만	27	33.8
	10년~20년 미만	14	17.5
	20년 이상	4	5.0
최종 학력	학사	52	65.0
	석사	24	30.0
	박사	4	5.0
	계	80	100.0

〈표 3〉 라키비움 필요성 개수에 따른 도서관 요구도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도서관	이용 공간	필요성1	9	4.56	0.527	0.194	0.900
		필요성2	28	4.50	0.745		
		필요성3	22	4.59	0.590		
		필요성4	21	4.43	0.870		
		전체평균	80	4.51	0.711		
	수장 공간	필요성1	9	4.67	0.707	1.867	0.142
		필요성2	28	4.61	0.737		
		필요성3	22	4.91	0.294		
		필요성4	21	4.90	0.301		
		전체평균	80	4.78	0.551		
	직원 공간	필요성1	9	3.78	0.972	1.627	0.190
		필요성2	28	4.04	0.881		
		필요성3	22	4.32	0.894		
		필요성4	21	4.43	0.811		
		전체평균	80	4.19	0.887		
	참고 정보 서비스	필요성1	9	4.00	1.000	2.691	0.027*
		필요성2	28	4.11	1.031		
		필요성3	22	4.45	0.671		
		필요성4	21	4.71	0.644		
		전체평균	80	4.35	0.893		
이용자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필요성1	9	4.11	0.601	2.236	0.015*	
	필요성2	28	4.36	0.780			
	필요성3	22	4.55	0.739			
	필요성4	21	4.76	0.625			
	전체평균	80	4.49	0.729			
문화 서비스	필요성1	9	4.22	0.667	1.978	0.124	
	필요성2	28	4.11	0.994			
	필요성3	22	4.50	0.673			
	필요성4	21	4.62	0.669			
	전체평균	80	4.36	0.815			

*p<.05

기록관 업무1 ‘기록물 발굴 및 인수’는 F=2.558, p=0.009, 기록관 업무4 ‘기록물 디지털화’는 F=3.357, p<.001로 유의수준 0.01을, 기록관 공간3 ‘기록물 전시실’은 F=2.310, p=0.04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 참조).

다변량 분산분석(MONOVA) 결과, 평균차가 유의하게 나타난 공간1, 공간2, 공간3, 업무1, 업무4에 대해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여 평균차를 조사하였다. 사후분석(Duncan) 결과, 여러 방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공간1 ‘기록물 정리실 및 보존실’, 공간2 ‘기록관리전문

〈표 4〉 라키비움 필요성 개수에 따른 기록관 요구도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기록관	기록물 정리실 및 보존실	필요성1	9	4.33	0.866	2.326	0.006**
		필요성2	28	4.68	0.548		
		필요성3	22	4.86	0.351		
		필요성4	21	4.81	0.512		
		전체평균	80	4.72	0.551		
	기록관리 전문요원 전용 작업 공간	필요성1	9	3.89	0.782	4.052	0.005**
		필요성2	28	4.50	0.745		
		필요성3	22	4.59	0.590		
		필요성4	21	4.81	0.402		
		전체평균	80	4.54	0.674		
	기록물 전시실	필요성1	9	4.56	0.527	2.310	0.04*
		필요성2	28	4.36	0.731		
		필요성3	22	4.59	0.503		
		필요성4	21	4.81	0.512		
		전체평균	80	4.56	0.613		
	기록물 발굴 및 인수	필요성1	9	3.89	1.167	2.558	0.009**
		필요성2	28	4.36	0.731		
		필요성3	22	4.68	0.568		
		필요성4	21	4.57	0.811		
		전체평균	80	4.45	0.794		
기록물 정리 및 보존	필요성1	9	4.56	0.726	0.633	0.324	
	필요성2	28	4.61	0.567			
	필요성3	22	4.77	0.528			
	필요성4	21	4.76	0.539			
	전체평균	80	4.69	0.565			
기록물 평가 및 폐기	필요성1	9	4.11	0.928	1.177	0.23	
	필요성2	28	4.39	0.737			
	필요성3	22	4.59	0.503			
	필요성4	21	4.57	0.811			
	전체평균	80	4.46	0.728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	필요성1	9	4.22	1.093	3.357	<.001**	
	필요성2	28	4.61	0.497			
	필요성3	22	4.64	0.492			
	필요성4	21	4.90	0.301			
	전체평균	80	4.65	0.576			

*p<.05, **p<.01

요원 전용 작업 공간, 공간3 '기록물 전시실', 업무1 '기록물 발굴 및 인수', 업무4 '기록물 디지털화'의 요구도가 높았다.

라키비움의 분야별 필요성에 따른 기록관 공간 및 업무기능 요구도의 평균 차이(I-J)를 살펴본 결과, 유의성을 보인 도서관의 공간1에

서 4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과 3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각 0.530, 0.476 순서 차이로 높았다. 공간2에서 4개의 필요성과 3개의 필요성, 그리고 2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각 0.921, 0.702, 0.611 순서 차이로 높았다. 공간3에서 4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2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0.452 차이로 높았다.

업무1에서 4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과 3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각 0.792, 0.683 순서 차이로 높았다. 업무4에서 4개의 필요성, 3개의 필요성, 그리고 2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0.385, 0.414, 0.683 순서 차이로 높았다.

다음 라키비움의 필요성 개수에 따른 문화관 요구도 분석 결과, 필요성의 개수에 따라 문화관 공간2 '수장공간'은 $F=4.044$, $p=0.010$ 로 유의수준 0.05를, 문화관 공간3 '학예사의 작업 및 연구공간'은 $F=2.318$, $p=0.006$ 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 참조).

다변량 분산분석(MONOVA) 결과 평균차가 유의하게 나타난 공간2와 공간3에 대해 사후검정(post-hoc)을 실시하여 평균차를 살펴보았다. 사후분석(Duncan) 결과, 여러 방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공간2 '수장공간'과 공간3 '학예사의 작업 및 연구공간'의 요구도가 높았다.

라키비움의 분야별 필요성에 따른 문화관 공간 및 업무기능 요구도의 평균 차이(I-J)를 살펴본 결과, 유의성을 보인 도서관의 공간2에서 2개의 필요성, 4개의 필요성, 그리고 3개의 필

요성을 보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0.488, 0.524, 0.530 순서 차이로 높았다. 공간3에서 3개의 필요성 2개의 필요성, 그리고 4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이 1개의 필요성을 보인 집단보다 각 0.207, 0.246, 0.624 순서 차이로 높았다.

3.2 설문조사 후 검토 결과

정보와 자료, 기관 간 협력, 전담부서, 예산 및 장단기 계획 중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가 달랐고 각 필요성의 필요 정도에 따라 기관별 공간 및 업무 요구도 간 평균 차이로 유의성을 보이는 기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도서관의 경우 여러 방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업무1 '참고정보서비스'와 업무2 '이용자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가 높았다. 기록관의 경우 여러 방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공간1 '기록물 정리실 및 보존실', 공간2 '기록관리전문요원 전용 작업 공간', 공간3 '기록물 전시실', 업무1 '기록물 발굴 및 인수', 업무4 '기록물 디지털화'의 요구도가 높았다. 문화관의 경우 여러 방면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낄수록 공간2 '수장공간'과 공간3 '학예사의 작업 및 연구공간'의 요구도가 높았다(〈표 6〉 참조).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우선순위가 되는 기능을 참고하여 고려인 라키비움의 주요 공간 요소를 선별한 결과, 고려인 라키비움 도서관의 공간은 보존서고, 열람실, 휴게공간을, 기록관의 공간은 기록물 보존실과 기록물 전시실, 문화관의 공간은 수장고와 전시실을 배치한다(〈표 7〉 참조).

〈표 5〉 라키비움 필요성 개수에 따른 문화관 요구도

구분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문화관	상설 및 기획 전시관	필요성1	9	4.44	0.527	0.102	0.959
		필요성2	28	4.54	0.508		
		필요성3	22	4.55	0.596		
		필요성4	21	4.57	0.676		
		전체평균	80	4.54	0.572		
	수장 공간	필요성1	9	4.33	0.707	4.044	0.010*
		필요성2	28	4.82	0.390		
		필요성3	22	4.86	0.351		
		필요성4	21	4.86	0.359		
		전체평균	80	4.79	0.441		
	학예사 작업 및 연구 공간	필요성1	9	4.11	0.782	2.318	0.006**
		필요성2	28	4.36	0.826		
		필요성3	22	4.32	0.780		
		필요성4	21	4.76	0.436		
		전체평균	80	4.43	0.742		
	소장품 수집 및 발굴, 보존	필요성1	9	4.22	0.833	0.824	0.485
		필요성2	28	4.57	0.573		
		필요성3	22	4.55	0.596		
		필요성4	21	4.62	0.740		
		전체평균	80	4.54	0.655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1	9	4.22	0.667	1.247	0.299
		필요성2	28	4.43	0.836		
		필요성3	22	4.64	0.581		
		필요성4	21	4.67	0.577		
전체평균		80	4.52	0.693			
지역 사회와 연계 활동 및 소통	필요성1	9	4.33	0.707	1.810	0.153	
	필요성2	28	4.39	0.629			
	필요성3	22	4.50	0.673			
	필요성4	21	4.76	0.436			
	전체평균	80	4.51	0.616			

*p<.05, **p<.01

〈표 6〉 필요성에 따른 기관별 기능 요구도 분석 결과

구분	기능	요구 기능
도서관	업무	참고정보서비스, 이용자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기록관	공간	기록물 정리실 및 보존실, 기록관리전문요원 전용 작업 공간, 기록물 전시실
	업무	기록물 발굴 및 인수, 기록물 디지털화
박물관	공간	수장 공간, 학예사의 작업 및 연구공간

〈표 7〉 도출된 고려인 라키비움 주요 공간·업무 요소

구분		도서관	기록관	문화관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	- 보존서고 - 열람실 - 휴게공간 - 프로그램 운영 공간	- 기록물 보존실 - 기록물 전시실	- 수장고 - 전시실
	업무	- 고려인 관련 도서 보존 우선시 - 고려인 라키비움 이용교육 - 고려인 역사교육 등	고려인 관련 - 자료 및 기록물 수집 - 자료 및 기록물 보존 - 자료 및 기록물 관리 - 자료 및 기록물 전시 - 온라인 서비스	고려인 관련 - 유물 및 소장품 수집 - 유물 및 소장품 보존 - 유물 및 소장품 관리 - 유물 및 소장품 전시

보존서고는 오래되어 훼손되기 쉬운 고려인 관련 도서들의 우선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세미나실, 강연실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해 고려인 라키비움 이용 교육, 고려인 역사교육 등 이용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록관의 공간 기능인 기록물 보존실과 기록물 관리실을 나누어 더 유실되기 이전에 고려인 관련 자료 및 기록물을 수집하고 최소한의 보존 절차에 맞게 보존·관리를 한다.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것은 기록관 업무기능에서 현지점 고려인 라키비움에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 여겨진다.

4.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 모형 제시

4.1 면담 내용 검토

심층 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 결과로 제시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 모형의 공간 및 기능 배치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고려인 관련 전

문가 5명(고려인마을 대표자 2명,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 G지역 NGO 센터장, H대학 사학과 명예교수), 사서 3명, 기록연구사 6명, 학예사 5명, 현 미술관 관장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결과를 정리·기술한 것이다.

첫째, 고려인마을 관계자로부터는 고려인 라키비움의 실제 구축을 위한 예산, 건물을 짓기 위한 땅 관련 문제, 보관 공간의 확대 필요성 등 현실적인 고심이 나타났다.

둘째, 공간의 배차나 동선, 업무와 운영 효율성의 타당함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세부적으로 모형을 수정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각기 너무도 다른 의견들이었다. 여기에서 기록연구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가지 제가 원하는 것은 지하에 수장고를 넓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장고가 있으나 너무 좁아 사진, 신문, 문서 위주로만 보관하고 있고 서적이거나 나머지 자료들은 저의 집에 있거나 다 흩어져있습니다. 수장고를 넓게 지어서 그 안에 분류체계를 갖추고 전시를 할 때는 1층으

로 올려서 했으면 싶습니다. 옆 공터에 예를 들어 강제이주열차나 토굴집을 만들어서 체험공간을 만들고 싶었으나 광산구 땅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월곡 고려인문화관 관장)

“공간 구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관 앞의 땅은 광산구청의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화관 뒤쪽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지만 집주인이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파는 것이 손해가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월곡동에는 제1주거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게 올리는 건물을 지을 수 없을뿐더러 고려인마을 자체가 공간이 협소합니다.” (고려인마을 대표자 A)

“고려인문화관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나 실은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시물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시된 내용물도 인위적으로 디자인된 인쇄물들입니다. 도서뿐만이 아닌 음성기록, 사진, 역사적 기록물(소비에트 시절 행정기록물 등), 동영상필름 상영물, 중요 물품 등을 수집, 전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및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G지역 NGO 센터장)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보존서고와 이용자 열람실은 완벽한 분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실 및 열람실을 1층에 배치하여 이용자가 무분별하게 층간 이동을 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고, 보존서고는 2층에 배치하여 기록물 보존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한 개의 층 전체를 보존서고로 활용하여 기록물의 통합적 관리를 하는 것도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록연구사 A)

위와 같은 대상별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 구축모형을 제시하는데 반영되었다.

4.2 구축 모형 제시

현재 운영하는 문화관 옆으로 증축하여 연결 통로를 놓고자 했던 설정 방식의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모형은 현실적인 문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하나의 새로운 건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층별로 공간구성(안)을 제시하였다(〈표 8〉 참조).

지하 1층은 시스템 유지공간과 수장고를 배치하였다. 지하에 배치한 만큼 침수 같은 재해 대비 정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며 이는 지하의 변전실 관리 경험이 있는 실무자 의견이 적용된 것이다. 계획수립을 위한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이후 시스템 유지 공간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다.

기존 문화관 건물 2층에 있던 수장고는 공간을 최대 확보하여 지하로 이동시킴으로써 고려인 유물 수집·보관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1층은 문화관의 전시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상설전시실,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 기획전시실을 놓아 오직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두었다. 시설 안내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공용휴식 공간이자 주민과의 소통공간 역할을 해주는 카페

<표 8> 고려인 라키비움 공간구축 모형

라키비움 구성					Space Program		
구분	설치공간	업무내용	담당 인력				
3F	사무공간 관리공간	관장실	라키비움 총관리	관장	관장실 (11%)	행정실(30%)	
		행정실	행정 관련 업무, 회의	사서· 학예사· 기록연구사 (직원)			
		보존서고 (기록물 보존실 포함)	도서·기록물 보존		기록물 관리실 (15%)	보존서고 (37%)	기록물 보존실 (7%)
		기록물 관리실	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디지털화 등)				
2F	대출·열람공간, 정보검색공간 문화공간	강의실1	행사 및 교육지원	-	강의실1(25%)	어린이실(17%)	
		강의실2					
		자료실	도서 대출·열람		강의실2(25%)	자료실(33%)	
		어린이실	어린이도서 열람, 놀이공간				
1F	전시공간	상설전시실	전시	학예사	카페테 리아 (17%)	놀이터(28%)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					
		기획전시실			시설 이용안내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12%)	상설전시실 (20%)
		안내데스크	공용휴식 및 주민소통공간				
		카페테리아			어린이 동반 가족 쉼터	-	
놀이터	-	-					
B1	보존공간, 시스템 유지공간	수장고	문화자원 보존·관리실	학예사	수장고(75%)		기타 (기계실, 변전실 등) (25%)
		기계실, 변전실 등	시스템 유지 시설	-			

테리아, 1층에서 위층으로 갈수록 정적인 공간에서 활동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의견을 참고하여 1층에 놀이터(실)를 배치하였다. 놀이터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쉼터로 소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두고자 했다.

2층은 도서관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일반도서의 대출·열람이 가능한 자료실과 어린이도서를 열람하고 어린이들의 놀이공

간이 될 수 있는 어린이실,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을 두었다. 2층의 강의실 개수는 구축 과정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3층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기록물 보관실을 포함한 보존서고를 두었다. 각 보존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록물 보관실은 이중 보안장치를 활용한다. 이는 보존서고와 기록물 보관

실이 동일한 구역에 배치됨으로써 분실·유실 및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록물 관리실은 기록물을 수집·이관, 표분류, 스캔 등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디지털화) 및 기록물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이외에 고려인 라키비움의 행정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라키비움의 전체 관리를 위한 관장실을 배치하였다.

또한 층별로 주요 공간의 배치와 면적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도안을 제시하는 space program 과정을 거쳤다. 총 건축 면적을 약 425평으로 가정할 때, 각 층의 공간에 따른 평수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첫째, 지하 1층이다. 여기에는 수장고 60평(약 198㎡), 기타공간(기계실, 변전실 등) 20평(약 66㎡)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지상 1층이다. 여기에는 전시공간 40평(약 132㎡), 놀이터 약 25평(82.5㎡), 카페테리아 15평(약 49.5㎡), 안내 및 기타공간 10평(약 33㎡)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지상 2층이다. 여기에는 자료실 40평(약 132㎡), 강의실1 및 강의실2 각 25평(약 99㎡), 어린이실 20평(약 66㎡)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지상 2층이다. 여기에는 자료실 40평(약 132㎡), 강의실1 및 강의실2 각 25평(약 99㎡), 어린이실 20평(약 66㎡)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지상 3층이다. 여기에는 보존서고(기록물 보존실 포함) 60평(약 198㎡), 행정실 40평(약 132㎡), 기록물 관리실 20평(약 66㎡), 관장실 15평(약 49.5㎡)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층별로 구성한 주요 공간의 비율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 도면이다. 추후 건축법을 적용하여 공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고려인 역사문화관을 중심으로 라키비움의 공간·기능을 고려하여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사 대상)와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2차로 전문가(관장, 대표자, 고려인 전문가 등) 대상으로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키비움의 공간과 기능요소이다. 필요성 개수에 따른 도서관·기록관·문화관의 각 공간 및 업무 요구도를 파악하여 고려인 라키비움에 필요한 기능 위주로 설정한 공간·기능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도서관의 업무로 '참고서비스'와 '이용자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기록관의 공간으로 '기록물 정리실 및 보존실'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전용 작업 공간', '기록물 전시실', 기록관의 업무로 '기록물 발굴 및 인수'와 '기록물 디지털화', 문화관의 공간으로 '수장공간'과 '학예사의 작업 및 연구공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이다. 설문조사로 도출된 공간 요소를 바탕으로 구축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구축모형은 전문가(관장, 대표자, 고려인 전문가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로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셋째, 수정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이다. 위와 같은 인터뷰의 내용 검토를 거쳐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수정·보완된 라키비움 구축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하 1층은 시스템 유지공간과 수장고이다. 지하에 배치한 만큼 침수 같은 재해 대비 정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며 이는 지하의 변전실 관리 경험이 있는 실무자 의견이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이후 시스템 유지공간의 위치는 바뀔 수도 있다. 기존 문화관 건물 2층에 있던 수장고는 공간을 최대 확보하여 지하로 이동시킴으로써 고려인 유물 수집·보관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둘째, 지상1층은 전시실이다. 문화관의 전시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상설전시실, 국가지정기록물 전시실, 기획전시실을 놓아 오직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두었다. 또한 시설 안내 등을 위한 안내데스크, 공용휴식 공간이자 주민과의 소통공간 역할을 해주는 카페테리아, 1층에서 위층으로 갈수록 정적인 공간에서 활동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의견을 참고하여 1층에 놀이터(실)를 배치하였다. 놀이터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쉼터로 소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두고자 했다.

셋째, 지상 2층은 도서관 기능의 공간이다. 일반도서의 대출·열람이 가능한 자료실과 어린이도서를 열람하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는 어린이실,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강의실을 두었다. 2층의 강의실 개수는 구축 과정에서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지상 3층은 보존 공간이다. 기록물 보관실을 포함한 보존서고를 두었다. 각 보존물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록물 보관실은 이중 보안 장치를 활용한다. 이는 보존서고와 기록물 보관실이 동일한 구역에 배치됨으로써 분실·유실 및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록물 관리실은 기록물을 수집·이관, 표분류, 스캔 등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디지털화) 및 기록물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이외에 고려인 라키비움의 행정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 라키비움의 전체 관리를 위한 관장실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제시한 구축모형은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정한 구축모형과의 차이가 있으며 요구사항과 실질적인 면을 기초로 건물의 연결 방법이 아닌 고려인 라키비움의 새 건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1차로 제시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모형은 각종 라키비움 사례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론적 내용의 모형이라면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 수정 모형은 인터뷰를 통하여 여러 방면(사서·학예사·기록연구사)에서 경력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건축법을 기반으로 한 고려인 라키비움 구축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이정미 (2018).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39-359. <https://dx.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0). 광주시 광산구 통계연보, 2020(제30회).
-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4), 259-282.
- 김미연, 정옥경 (2017). 공공도서관 사서의 라키비움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0(1), 77-112.
- 김병학 (2022). 고려인은 누구인가(제2판). 광주: 월곡고려인문화관.
- 김호준 (2013).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서울: 주류성.
- 법무부 (2022).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처: <https://url.kr/eb3wso>
- 선봉규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동포 자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2), 803-829. 출처: <https://dx.doi.org/10.22143/HSS21.8.2.43>
- 유영혁 (2022.06.20).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난민 400여 명,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 여성신문. 출처: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97>
- 장미경 (2016). 중규모 대학교 도서관의 라키비움 구축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우권, 김현희 (2022). 라키비움(Larchiveum)에 숨어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지식정보자원. 서울: 청람.
- 전한성, 윤재웅 (2021). 만해마을의 만해문화박물관 라키비움 구현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합 공간의 기능과 구성 요소 탐색. 동아시아불교문화, 47, 343-391. <https://dx.doi.org/10.21718/EABC.2021.47.12>
- 정막래 (2017). 광주고려인마을 콘텐츠 연구: <나눔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조현양, 김홍렬, 최재황, 박종도, 이정찬, 이용운 (2015).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지충남, 양명호 (2016). 소련지역 고려인 한글학교 설립과 운영- 광주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8, 3-44. <https://dx.doi.org/10.15299/jk.2016.2.58.3>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Hedegaard, Ruth (2004). The benefit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 working together:

a Danish case of shared databases. *New Library World*, 105(7/8), 290-296.

<https://doi.org/10.1108/03074800410551048>

International Federation Library Association (2022, July 14). Available:

<https://www.ifla.org/units/lamms>

Kuzyk, Raya (2008, Jul 30). Lj talks to megan winget, who studies preservation of online games.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leadership/lj-talks-to-megan-wingetwho-studies-preservation-of-online-games>

Library and Archives Canada (2020, July 7). Available: <https://library-archives.canada.ca/>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Research (2022, July 14). Available:

<https://www.oclc.org/research/home.html>

石川徹也, 根本 彰, & 吉見後哉 공편 (2021). つながる図書館・博物館・文書館: デジタル化

時代の知の基盤づくりへ. 조혜린, 서유진, 김소영 옮김 (2021).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연계 · 협력: 라키비움과 지식기반 만들기. 파주: 한울.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Mi-Kyung (2016). Study of Development of a Model for Constructing a Larchiveum for Libraries of Medium-sized Universities. MA Thesis,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ang, Woo-Kwon & Kim, Hyun-Hee (2022). Korean Diaspora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Hidden in Larchiveum. Seoul: Cheonglam.

Cho, Hyun-Yang, Kim, Hong-Ryul, Choi, Jae-Hwang, Park, Jong-Do, & Lee, Jung-Chan (2015). Institutional Research for the Realization of Larchiveum in Librari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Choi, Young-sil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Doctoral dissertation, Major in Record Management & Archives,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s of Myongji University.

Gwangsan-gu, Gwangju (2020). Statistical yearbook of mines in Gwangju. 2020(30th).

Jeon, Han-sung & Yun, Jae-woong (2021). A basic study on the realization of larchiveum in manhae village's manhae literature museum: exploring the capabilities of the integrated space and elements of the space.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47,

- 343-391. <https://dx.doi.org/10.21718/EABC.2021.47.12>
- Jeong, Mak-Lae (2017).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Soviet Koreans' enclave in Gwangju: with a focus on the articles in "Nanumbangsong". Doctoral dissertation, Dept. of Global Cultural Content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Ji, Choong-Nam & Yang, Myeong-Ho (2016). The soviet union Korean hangul school establishment and operation: focusing on the gwangju hangul school. *Journal of Koreanology*, 58, 3-44. <https://dx.doi.org/10.15299/jk.2016.2.58.3>
- Kim, Byung-Hak (2022). Who are the Koryoin (2nd ed.). Gwangju: Wolgok Koryoin Cultural Center.
- Kim, Ho-Jun (2013). 150 Years of Painful History of the Eurasian Korean Diaspora. Seoul: Julyuseong.
- Kim, Kyung-hak (2014). 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yein' in Central Asian Countries to Korea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Koryeinmaeul' in Gwangju metropolita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7(4), 259-282.
- Kim, Mi-yeon & Chung, Ok-kyung (2017). A study on perception of larchiveum by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focus on ich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0(1), 77-112.
- Kwak, Seung-Jin & Lee, Jeong-Mi (2018). Study on larchiveum introduction strategy of library as a multi cultur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39-359. <https://dx.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Ministry of Justice (2021). Yearbook of Korea Immigration Statistics 2021. Available: <https://url.kr/eb3wso>
- Sun, Bong-Kyu (2017).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ducation for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youths of koryein in gwangju metropolit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2), 803-829. <https://dx.doi.org/10.22143/HSS21.8.2.43>
- Yoo, Young-Hyeok (2022, Jun 20). About 400 Koryoin refugees from Ukraine settled in Gwangju Koryoin Village. *Women's newspaper*. Available: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797>
- 石川徹也, 根本 彰, & 吉見後哉 (2021). つながる図書館・博物館・文書館: デジタル化時代の知の基盤づくりへ. Jo, Hye-rin, Suh, Yoo-jin, & Kim, So-Young ed. (2021). Connected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Building a foundation for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Paju: Hanul.